

## 근대 초기 선교사 기록에 담긴 후각 감각을 통해 본 문화번역의 가능성\*

김성연\*\*

### I. 서론

이 논문은 근대 초기 조선에 체류한 서양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서의 후각 경험을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두 문명이 접촉하고 공존하며 발생했던 의식과 무의식의 지점들을 살펴본다.<sup>1)</sup> 이들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 출신으로 19세기 후반부터 일제 말기까지 조선에서의 선교 활동과 생활 경험에 관해 기록했다. 이들의 기록에서 후각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의의가 있다.

---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581).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 글의 초고는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제5회 학술대회’(2021.9.3.)에서 발표되었으며, 유익한 조언을 주신 정한나(연세대)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첫째, 선교사들은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에 이주하여 장기 거주한 최초의 서양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종교 사역을 목표로 조선 사회에 정착하며 사업과 생활을 영위했다. 선교 활동은 교회 사역뿐 아니라 출판·의료·교육 분야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러한 문화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조선인과 접촉하며 지역 사회에 빠르게 뿌리 내리고 공존하게 되었다. 이들의 이주 목적과 조선 사회에서의 정체성은 같은 동양 문화권 내에서 이주한 중국인이나 제국의 국민으로서 식민지에 이주한 일본인과는 달랐다. 또한, 서양인 선교사들은 치외법권에 속한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근본적으로 동화되긴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외교나 상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서양인에 비해서는 조선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 젠더에 보다 내밀하게 접촉하며 정착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글은 근대의 일상에 대한 관찰자의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그들은 조선에서의 활동을 종교적, 학문적, 문학적, 그리고 일상적 차원에서 기록한 대표적인 외부인이었다.<sup>2)</sup> 따라서 이들이 작성한 문서들은 서구의 동아시아학 혹은 선교 관련 저널에 게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판되며 보다 광범위한 서양인들에게 조선 사회를 알리는 자료가 되었다. 기독교 출판을 중심으로 발간된 이들의 문서 활동은 성서, 찬송, 주석서, 신학에 관한 것이었으나 문화번역과 의학, 교과서류로 확장되었고, 개별 선교사들은 일기나 편지, 기행문 같은 사적 기록물도 상당수 남겼다. 이들의 기록물에는 낯선 문화

2) 조선에 머문 서양인 직업군은 외교관, 상인, 언론인 등으로 다양했으며, 그 중 선교사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선교사들의 서신을 디지털아카이빙하는 연구 교육 방법론 설계가 시도되기도 했다(한미경 (2021).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사례 연구: 초기 내한 선교사 사료 수업과 연계하여. 인문과학123권. 7-38쪽). 그런데 이들이 남긴 사적 기록물과 원고 원본은 본국 대학 도서관에 기증된 경우가 많아,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을 통한 사료 발굴과 연구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는 로스킨의 선교사 계일 연구와 최혜월의 여성 선교사 연구 등이 있다. King, R. (2004). Western protestant missionaries and the origins of korean language modern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11. pp.7-38. ; Choi, H (2009). *Imagining the other: discursive portraits in missionary fiction. Gender and Mission Encounters in Korea*: New Women, Old W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권의 타자를 만난 접경지대의 일상적 경험과 감각이 담겨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에 파견된 전체 선교사들 중 여성의 비중이 70%에 달했으며<sup>3)</sup> 이들 역시 대부분 문서 활동을 하였다<sup>4)</sup>는 것이다. 여성 선교사나 선교사 부인들은 지역 사회에서 여성, 아동, 신분이 낮은 계층과 접촉하고 요리와 양육, 교육과 여성 전도를 담당하며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세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관찰한 기록으로서의 희귀성도 있다. 특히 문화번역과 창작 작업에도 매진했던 여성 선교사들은 섬세한 언어와 감각으로 이를 포착해 남길 수 있었다.<sup>4)</sup>

이러한 문서들은 인도, 중국, 아프리카 등 범아시아권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글과 함께 서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영국의 왕립 아시아 학회지(Royal Asiatic Society)에서는 선교 르포타주 시리즈로, 북미권의 뉴욕, 시카고, 토론토에서 발행되던 플레밍 출판사(Fleming H. Revell Company)에서는 선교사 여행(Missionary Travel) 시리즈로 발간되었다. 언더우드 부부, 베어드 부부, 게일 등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저술은 이러한 경로로 해외에서 출간되었으며, 이 출판물은 조선에 관한 자료가 드문 시기에 초기 한국학 자료로 기능했다. 그리고 이들 문서의 사료적 가치가 주목된 2000년대 전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어로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다.<sup>5)</sup>

셋째, 이들의 후각 기록은 이주자가 새로운 문화권에 처음 진입하던 순간, 그리고 조선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낯섦과 각성의 기록이며, 이때 ‘냄새맡기’는 대상과 공존하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며 의례적인 행위이다. 공간과 장소에 관한 대표적 연구자인 이푸 투안(Yi Fu Tuan)은 정

3) 선교사 통계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김승태, 박혜진 엮음 (1994). *내한선교사총람*. 서울: 한국역사연구소 4-5쪽.

4) 문학 번역가로서의 여성 선교사들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에서 밝혔다. 김성연 (2015a). 근대 초기 선교사 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6집, 253-290쪽.

5) 최근 살림출판사에서는 “그들이 본 우리 Korean heritage books” 시리즈로 선교사들의 기록물이 집중 번역 출간되었다.

서가 매개된 장소성을 ‘토포필리아(topophilia)’로 개념화하면서, 대상에 거리를 두고 추상적으로 ‘보기만’ 하는 사람은 구경꾼이자 관광객인 반면, 해당 공간에서 시각 이외의 후각, 촉각, 청각 등의 오감으로 구체화된 경험과 정서를 겪는 사람은 비로소 그곳의 장소성, 즉 ‘토포필리아’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다.<sup>6)</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양인 선교사가 타국에서 타인과 보낸 감각 경험의 기록은 공간을 일상의 장소로 전유하며 감각과 정서로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토포필리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1890-1920년대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입국하여 생경한 문화와 타자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핀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서구 교육 제도 속에서 양성된 종교인이자 교양인으로서, 근대 서구의 인문·사회·과학 지식을 토대로 인지하고 사고했다. 이러한 선교사의 저술활동을 문화번역 실천으로 주목한 연구가 최근 양산되기 시작했다.<sup>7)</sup> 여기에서는 이들이 ‘문화적 접경지대(contact zone)’에서 남긴 후각 기록에서, 경험이 감각되고 해석되고 번역되는, 즉 언어로서 구체화 되어가는 ‘문화번역’의 현장을 포착하고자 한다.<sup>8)</sup> 감각 경험이 논리적 언어로 정리되는 단계는 타자의 행동양식과 언어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화번역’ 행위이며, 이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의 정체성과 관점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Tuan, Yi-Fu (1960).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이옥진 옮김 (2011). *토포필리아*. 서울: 예코리브르 29-31쪽.

7) 자넷윤선리 (2021). 미국 선교사 애니 베어드 소설의 문화 번역 양상 연구. *어문론총*, 90권, 91-115쪽. 그 밖에도 문화 접경 지대의 제국/서양중심적 시선에 대한 대안적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박지훈 (2021). 매리 루이스 프렛과 접경 혹은 접촉지대 연구. *역사비평*, 136권, 155-196쪽.

8) Pratt, M.L.은 문화접경지대(contact zone) 개념으로 18-19세기 유럽인의 여행문학을 통해, 식민 담론이 제국과 식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파생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200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그리고 이러한 ‘문화접경’과 ‘문화번역’의 개념을 한국의 혼종적이고 전복적인 문화분석에 적극 소환한 시도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였다.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48-49쪽.

## II. 기록의 주체, 조선의 냄새를 맡다

### 1. 이국의 냄새, 차이의 감각

여성 선교사들의 일지에서는 조선의 봄 향기에 관한 상세한 묘사를 발견할 수 있다. 언더우드(Underwood, H.G.) 선교사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Underwood, L.H.)도 5월의 녹음과 화초의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우리는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그곳을 찾았다. 이런 말이 가능할지 몰라도 아무튼 조선의 5월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5월보다도 아름답다. 참으로 절묘한 빛깔과 향기를 지닌 들꽃들이 어디에나 탐스럽게 피어 있었다.<sup>9)</sup>

그녀는 바로 이 5월의 어느 날 의주에서 경성으로 내려오는 길에 본 들꽃의 향기를 기록했다.

갓가지 꽃들이 만발한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다. 길가에서 십 피트도 안 되는 곳에 나리꽃이 무더기로 잔뜩 핀 계곡이 보였고, 내 가마 안은 라일락과 들장미, 향긋한 제비꽃, 그밖에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찼다.<sup>10)</sup>

들판에 나리꽃, 라일락, 들장미 등이 만개해있었다는 기록은 근대 초기 이북 지역의 식생 분포를 환기시켜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데, 이 중에서도 특히 제비꽃의 향기에 관한 기록이 빈번히 보여 주목할 만하다. 릴리어스 언더우드는 평안북도 강계를 지나며 “참으로 꽃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산중에도 자라는지 자못 놀라웠던 향긋한 제비꽃을 꺾었다”<sup>11)</sup>고 기록한다.

9) Underwood, L. H. (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 American Tract Society. 김철 율김 (1984).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생활. 서울: 뿌리깊은 나무.

10) Underwood, L. H. 김철 율김 (1984). 위의 책. 89쪽.

11) Underwood, L. H. 김철 율김 (1984). 위의 책. 69-70쪽.

1893-1902년 평양에서 활동했던 로제타 홀(Hall, R.) 역시 1901년의 새해 카드에 제비꽃을 그렸던 것을 보면<sup>12)</sup>, 만주 바이올렛(Manchurian Violet)이란 학명을 가지고 오랑캐꽃이라고도 불렀던 제비꽃이 만주를 포함한 조선 북쪽 지역에서 널리 분포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 허버트(Herbert, H.B.) 역시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1906)에서 진달래와 철쭉과 같은 대표적인 한국의 봄꽃과 더불어 제비꽃을 인상적으로 묘사해놓고 있다. ‘제비꽃 방식’이라는 표현은 그것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준다.

한국인들은 비록 꽃을 즐길 만큼 여유가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꽃을 매우 좋아한다. 봄이 오면 진달래와 철쭉으로 산은 온통 붉게 물들며 제비꽃이 방식처럼 두껍게 깔린다. 한국인들은 제비꽃을 “오랑캐꽃”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잎이 만주인의 변발과 닮았기 때문이다.<sup>13)</sup>

이처럼 선교사들은 조선 땅의 봄 향기로 들뜬에 피진 제비꽃 향을 가장 인상적으로 기록했으며 더불어 수선화, 수국, 붓꽃 향도 언급했다.

산개나리는 두메산골에서 화사하게 피며 수선화와 아네모네도 많이 핀다. (중략) 여염의 화단에서는 자줏빛 붓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관청의 울 안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에는 연꽃이 핀다. 한국인들은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살구나무, 돌능금나무 등 잎이 돋기 전에 꽃이 피는 모습을 좋아한다. 한국인들은 또한 석류, 까마귀밥나무, 장미, 수국, 국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나리를 좋아한다. (중략) 서울에는 아무리 가난한 초가집이라도 꽃을 심지 않은 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sup>14)</sup>

12) Hall, R. S. (2017). Diary of Dr. Rosetta Hall, volume 5. Colorado: Esther Foundation. 김현수, 문선희 옮김 (2017). 로제타 홀 일기5. 서울: 흥성사. 171쪽.

13) Hulbert, H. B. (1906). The passing of Korea. London : William Heinemann. 신복룡 역주 (2019). 대한제국멸망사. 서울: 집문당. 20쪽.

14) Hulbert, H. B. 신복룡 옮김 (2019). 위의 책. 21쪽.

허버트에 따르면 조선은 가난한 초가집에서도 꽃을 기꾸었다. 관청에는 연꽃이, 여염집 화단에는 자줏빛 붓꽃이 만개했다. 화단과 정원에 심어진 초목의 수종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향기로운 조선 땅의 향기에 대한 언급은 ‘봄’의 ‘자연’을 감상할 때에 집중되어 있다. 계절이 여름으로 바뀌고, 일상 생활공간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곳에서는 강력한 다른 냄새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우선 이들이 조선 땅을 밟고 맡았던 첫 냄새부터 이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주로 북미 항구에서 출발한 선교사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 그들은 낯선 땅에 대한 기대와 긴장 속에서 ‘배’에 머물러야 했던 경험과 감각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곳은 사람과 화물이 과밀집되어 대체로 멀미가 날 정도로 “배의 역겨운 냄새”<sup>15)</sup>가 났다. 따라서 이들은 선박의 실내에서 빠져나와 육지에 첫 발을 디디며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며 깊은 호흡을 했다. 이때 들숨으로 들어온 이국의 낯선 냄새는 그 첫 인상을 좌우했다.

그들은 향로를 따라 일본이나 중국 땅을 먼저 밟으며 소위 ‘동양’이라는 ‘이국의 정취’를 처음 접했다. 물론 “동양”의 냄새가 모두 같지는 않았다. 그 지역 차이를 섬세하게 언급한 서양인이 있으니 바로 시각과 청각 정보 없이 후각과 촉각, 그리고 진동으로 세계를 인지해야 했던 헬렌켈러(Heller, H.)였다. 다음은, 1937년 중일전쟁이 감돌던 시기 미국을 출발한 헬렌켈러가 일본을 거쳐 조선 땅에 상륙했을 때 주고 받은 문답의 내용이다.

문(조선인): “당신은 냄새로써 안다고 하였는데 냄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헬렌켈러): “음악 세계에서 음악을 아는 것과 같이 냄새 세계가 있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 있는지 전원에 있는지 바다인지 산인지 알 수 있지요. 일본 내지에 와서 일본 냄새를 알었고 조선에 와서 조선 냄새

15) Hall, R. S. 지음. 김현수, 문선희 옮김 (2015). 앞의 책. 72쪽.

새를 알았습니다. 나는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동경, 경성 냄새를 다 구별하니 예를 들면 분 냄새, 향수 냄새, 담배 냄새, 구두약 냄새 등으로 이것은 파리 냄새다 이것은 베를린 냄새다 이것은 뉴욕 냄새다 이와 같이 분간을 하지요.” 이 말에 청중은 다시 감탄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sup>16)</sup>

농매이었던 그녀는 외부 세계를 오직 후각과 촉각, 그리고 진동으로만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중 장소의 차이는 대부분 후각 정보에 의지했다. 그런데 ‘냄새’는 반드시 특정한 물질을 매개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그녀가 언급한 ‘분 냄새’, ‘향수냄새’, ‘담배냄새’, ‘구두약냄새’는 그 주체들이 사용하는 물질과 행동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에만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여기서 열거된 도시의 냄새는 주체의 젠더와 계급,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소비 문화의 산물이었다. 즉, 대체로 시각에 비해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인식되어 온 후각은 문명 사회에서는 지극히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찍이 알랭 코르뱅(Corbin, A.)은 프랑스 근대화와 혁명의 시기에 계급과 자본, 도시를 중심으로 한 변화 속에 후각적 감각의 부상과 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 현상들을 ‘냄새의 사회사’로 분석한 바 있다.<sup>17)</sup> 즉, ‘후각’은 오랜 기간 하등한 감각으로 폄하되어 왔으나<sup>18)</sup>, 이 감각 경험에 대한 인식과 담론은 복합적인 사회적 관계와 배경 지식, 그리고 정치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헬렌켈러가 정치외교적인 이해관계와 종교적인 지원 속에서 세계 원정 강연을 돌며 이동하는 중 그 장소들을 변별하는 도구로 후각을 활용하였던 것처럼, 조선으로 이주했던 선교사들 역시, 그녀처럼 동양 내에서의 미묘한 지역 차이까지는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타지와 타자의 냄새에 주목했다. 이들은 주

16) 헬렌 켈러는 여성에게 무엇을 부르짖었는가 2. (1937.7.17.). 동아일보 3면.

17) Corbin, A. (1992). *Le Miasme Et La Jonquille, L'Odorat Et L'Imaginaire*. Paris: Aubier Montaigne. 주나미 옮김 (2019). *악취와 향기-후각으로 본 근대 사회의 역사*. 서울: 오롯.

18) 심리학자 빌헬름 부트 역시 칸트, 데카르트, 스피노자의 합리론에 기반해 감정을 동반한 미각과 후각을 하등감각으로 분류했다. Pause, B. M. & Seul, S. M. (2020). *Alles Geruchssache*. Berlin: Piper. 이은미 옮김 (2021). *냄새의 심리학*. 서울: 북라이프 82쪽.

로 시각 정보를 토대로 한 관찰 결과를 기록하였으나, 그 사이에 개입된 후각 정보의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이나 내면을 동반하며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여선교사 플로렌스 J. 머레이(Murray, F.J.)가 1921년 캐나다에서 태평양 횡단 기선을 타고 일본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오는 여정에 관한 기록이다.

밴쿠버에 도착한 후 캐나다의 태평양 횡단 기선을 타고 출항한 지 2주일 만에 일본 고베 항에 내렸다. 뜨거운 날씨였지만 우리는 이국의 정취를 맛보러 거리로 나섰다. (인용자 중략) 생선요리 냄새가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와 섞였고, 여기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냄새까지 범벅이 되어 온 거리를 뒤덮었다. 아! 바로 여기가 동양이구나. 처음 이런 광경을 접하며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해나갈지 걱정에 휩싸였다.<sup>19)</sup>

그녀는 동양 진입의 첫 관문인 일본의 고베 항구에서 ‘이국의 정취’를 기대하며 거리로 나섰다가 예상치 못했던 냄새를 맡게 된다. 그것은 ‘생선요리’ 냄새와 ‘하수도의 악취’,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야릇한 냄새’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 냄새를 맡고 그녀는 비로소 “아 바로 여기가 동양이구나”하고 자신이 동양에 왔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낯선 감각의 세계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런지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들숨과 함께 훅 들어온 낯선 타지의 냄새는 타지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감지되는 첫 번째 감각, 즉 타지를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던 것이다.

## 2. 공존과 불안의 감각

시각, 청각, 촉각과 달리 후각은 피하기 어려운 자극이다. 생존을 위한 호흡의 과정에서 후각 자극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거나 듣거나 만지

19) Murray, F. J. (1975). *At the foot of Dragon Hill*. New York: E.P. Dutton. 김동열 옮김 (2009). *내가 사랑한 조선*. 서울: 두란노. 19쪽.

지 않으면 되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곳에서 살아 숨 쉬는 한 계속 겪어야만 하는 자극이기 때문에, 이주자에게 낯선 냄새의 자극은 같은 공간에 타자와 함께 머물며 감내하느냐 떠나느냐를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첫 번째 시험인 셈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머레이 선교사는 먼저 도착한 일본 항구에서 강렬하고 불쾌한 냄새를 맡은 이후 조선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어 숙소를 찾아 골목길로 진입하며 또 다른 냄새를 맡게 된다.

에델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내 팔을 붙잡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안내했다.

“이게 무슨 냄새지요?”

뒤뚱거리며 쫓아가던 내가 물었다.

“아, 냄새가 납니까? 이건 하수구와 뒷간에서 나는 냄새지요. 마당에서 돼지를 키우긴 하지만 그 냄새는 아닐 겁니다. 당신도 이제 곧 이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것이예요.” (인용자 중략)

방안의 벽은 진흙벽으로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 곳곳에 지푸라기가 비어져 나와 영성했다.<sup>20)</sup>

머레이와 에델의 대화에서는 본능적 반응이면서도 문화적 습관인 감각이 변화하는 데 대한 경험적 지식이 전달되고 있었다. 머레이가 하수 및 정화조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재래식 주거 환경의 냄새를 감지하자, 그녀보다 앞서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에델은 곧 오물과 돼지 냄새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후각 자극은 쉽게 피로해져서 적응이 되기도 하거니와, 그것은 또한 심리적 익숙해짐과 받아들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른 삶의 방식에서 감지되는 이질적인 냄새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혐오가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자와의 공존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척도로 언급되곤 했다.

20) Murray, F. J. 김동열 옮김 (2009). 위의 책. 22쪽.

그 밖의 선교사들의 기록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들을 직시하는 대목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이들은 주로 하수, 오물, 뒷간, 초가집, 환기 없는 온돌과 초가지붕 같은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청국장, 김치, 식힌 홍어와 같은 발효 식문화 냄새, 그리고 씻지 않는 신체와 시체의 악취와 등에 대한 경험을 기록했다. 특히 식힌 홍어에 대해서는 “이 독한 냄새 때문에 상 위에 차려진 멸정한 밥조차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다”<sup>21)</sup>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중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거리의 악취였다. 다음은 1888년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 게일(Gale, J.S.)이 초기에 남긴 기록이다. 게일은 조선에서 경험한 다양한 악취에 관해 기록했으며, 이는 대체로 주거와 식문화의 차이로 인해 감지되는 것들이었다.<sup>22)</sup>

거리는 좁았다. 도랑이 진창길을 이리저리 가르며 흐르고 있었고, 반쯤 고인 썩은 물은 공기 중에 독한 냄새를 흩뜨리고 있었다. 다른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집들은 낮은 흙벽을 짚으로 덮은 초가였고, 방구들 밑으로 다들 불을 때고 있었다.<sup>23)</sup>

이처럼 상하수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생기는 악취의 문제는 유럽과 영미의 도시화를 다룬 알랭 코르뱅이나 콘스탄스의 분석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소재였다. 따라서 조선만의 특수성은 아니었다. 조선이라는 지역성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내의 독특한 냄새에 관해 언급할 때였다.

조선 사람들의 방에서는 특유의 냄새가 났는데, 대체 무슨 냄새일까 알

21) Gale, J.S. (1898). Korean sketches. New York, Chicago [etc.] : F. H. Revell company. 최재형 옮김 (2018).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1888-1897. 서울: 책비. 41쪽.

22) 게일이 남긴 악취에 관한 기록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오리엔탈리즘적 성격에 주목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혜림 (2020). 타자에 의하여 감각된 조선. 언어사실과 관점. 언어정보 연구원, 50호.

23) Gale, J.S. 최재형 옮김 (2018). 앞의 책. 35쪽.

아내려고 몇 달 동안이나 애를 썼다. 어딜 가든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는데, 마침내 냄새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그건 두 냄새가 합쳐진 것인데, 하나는 구석에서 타타타닥 타고 있는 아주까리기를 냄새였거나, 다른 하나는 일렬로 천장에 매달려 곰팡이를 피우고 있는 콩 덩어리에서 나는 냄새였다. 겨우내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쓴 이 콩 덩어리는 발표가 될 때까지 물에 담가놓았는데, 진액이 흘러나오면 끓여 간장을 만들었다.<sup>24)</sup>

보통 냄새 분자는 단일하지 않고 여러 종이 뒤섞여 있으며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일은 몇 달 간 반복적으로 그 ‘냄새’를 분석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간적 조건과 물질과 관습 속에서 생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제일은 조선인 계층 간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갓’의 냄새는 양반의 냄새이고, ‘아주까리 기름’과 ‘매주콩 냄새’는 여염집에서 나는 냄새라고 구분할 수 있었다.

애니 베어드(Baird, A.) 역시 실내 냄새에 주목했다. 다만 주로 매주 냄새를 이야기한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체취와 환기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선교사들은, 한국과 같이 방이 매우 좁고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주 씻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악취를 풍기고, 촛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이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만 한다. 유일하게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방문이 열렸을 때이다. (중략) 하지만 창문은 종이로 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유독성 세균에 노출되어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sup>25)</sup>

중요한 것은 악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언급되느냐이다. ‘악취’에 대한 묘사는 대체로 ‘비위생’적 환경 그리고 ‘세균’의 위협과

24) Gale, J.S. 최재형 옮김 (2018). 앞의 책. 176쪽.

25) Baird, A. (1913). Inside Views of Mission Life, Westminster Press. 성신형, 문시영 옮김. 오지석 해제 (2019). 개화기 조선 선교사의 삶. 서울: 선인출판사. 55쪽.

함께 언급되었다. 근대 위생 담론 속에서 ‘악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미개하고 불결한 상황에 대한 징후로서 인식되었고 따라서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동정되었다. 그리고 이는 근대 위생 담론 뿐 아니라 전통적 관습의 문제와도 연결되었다. 1888년 조선에 도착했던 선교사 게일은 거리의 또 다른 냄새를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시체 냄새가 뒤덮고 있는 이곳에 오면 누구든지 곧 보통의 시체 썩는 냄새와 천연두나 콜레라로 죽은 시체에서 나는 독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자니, 바다가 내려다보이던 부산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조선 친구와 눈부신 오후를 즐기던 때가 생각난다. 그때 갑자기 대나무 기둥 네 개 위에 널브러져 심하게 썩어가는 한 어린아이의 시체와 맞닥뜨렸는데 공자님이 죽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풍기는 이 지독한 냄새와 끔찍한 모습에 비하면 우리네의 지옥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sup>26)</sup>

게일은 19세기 후반 천연두와 콜레라의 유행 속에서 조선 거리에 방치된 시체들을 보게 된다. 전염병의 냄새에 “익숙해져 지나가는 사람들은 둔감해져 후각 신경도 이러한 강렬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sup>27)</sup> 그리고 곧 그도 냄새만으로도 시신의 사인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버렸다는 유머를 구할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후각은 쉽게 피로해지고 익숙해져서 감지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훈련이 되어서 섬세한 차이를 감지해 낼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을 떠나고 싶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매장을 바로 할 수 없는 현실과 유교적 관습 탓에 벌어진 이런 풍습을 조선인들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환경 조건과 거주자의 태도를 분리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다.

26) Gale, J.S. 최재형 옮김 (2018). 앞의 책. 22쪽.

27) Gale, J.S. (1911).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신복룡 옮김 (1999). 전환기의 조선. 서울: 집문당. 112쪽.

당장 토할 것처럼 미식거리는 속으로 집에 돌아온 나는 온 사방에 시체가 널린,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을까? 나는 점차 다른 측면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풍습은 그들이 숭배하는 유교문화의 일부여서 어쩔 수 없는 것일 뿐, 이들도 나만 큼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sup>28)</sup>

시체가 지상에 방치되어 발생하는 냄새에 관한 기록은 선교사들의 기록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다음은 애니 베어드가 쓴 소설의 구절로, 게일과 마찬가지로 시체의 악취에 주목하는데, 그녀 역시 조선의 매장 문화의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

조금 더 걸어가자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러 보배는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냄새를 언제까지 더 견딜 수 있을까? 골목 오른쪽의 그 집에는 한 달 넘게 죽은 사람의 시체가 방치돼 있었다. 그 남자는 살인죄를 지어 관청의 명령에 따라 몽둥이를 맞아 죽었지만 매장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매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거액의 뇌물을 바쳐야 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 대책도 없이 시체는 하루하루 삼복 더위에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sup>29)</sup>

거리에 버려진 시체의 악취는 범죄와 가난과 무능, 그리고 관의 부패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되었다. 이들의 기록은 주로 주거환경, 식습관, 매장문화의 차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동반하였다. 그리고 눈과 코로 감각된 경험의 불쾌함을 근대 위생 담론을 토대로 해석하였다. 주목할 것은 그것은 지식의 차원만이 아니라 생존의 차원이기도 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본인뿐 아니라 어린 자녀와 가족이 전염병 및 낮은 풍토, 비위생적 환경이

28) Gale, J. S. 신복룡 옮김 (1999). 위의 책, 23쪽.

29) Baird, A. L. A. (1909).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Chicago, etc. : Fleming H. Revell Company. 유정순 옮김 (2007).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 서울: 디모데. 55쪽.

나 갖추어지지 않은 의료시설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악취’는 ‘전염병’과 ‘죽음’의 ‘불안’을 상기시키는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자신도 감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리란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장에서는 자신의 냄새를 맡는 타자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선교사의 반응을 살펴본다.

### III. ‘기록 주체’의 냄새를 맡는 타자의 목소리를 듣다

일찍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에서 동양에 관한 사고와 지식은 그들의 시선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sup>30)</sup> 따라서 서양인 선교사들의 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역시 관찰의 주체이자 기록의 주체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좀처럼 관찰과 감각의 대상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조선인들의 시선조차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근대인에게 시선은 곧 시각 정보이며 따라서 문명화된 코드로 읽히지 않는 주체의 시선은 정보로 전환될 맥락을 상실한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선교사 계일의 기록이다.

종이를 바른 문과 장은 모두 손가락으로 뚫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 뒤편엔 단 한 번의 깜빡임도 없이 나를 주시하던 검은 눈동자들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려주는 얼굴 표정도, 눈의 형상도 없이 홀로 존재하던 그 눈동자들은 너무나 섬뜩해서 나는 호롱불을 입으로 혹 불거나, 물을 부어 꺼야만 했다. 조선에서 지내는 내내 이렇게 나를 포위했던 눈동자들, 그것은 내 선교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 중 하나였다. 안씨 집에서의 첫날밤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 눈동자로부터 벗어나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것을 어둠으로 묻어버리는 것뿐이었다. <sup>31)</sup>

30) Said, E.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박홍규 옮김 (2007).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31) Gale, J.S. 최재형 옮김 (2018). *앞의 책*. 34쪽.

게일은 자신을 주시하는 조선인의 검은 눈동자들에서 ‘생각’도 ‘표정’도 ‘형상’도 읽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관찰받는 자가 된 것이다. 언어, 사고, 행동 양식을 포함한 소통의 프로토콜이 다른 자의 시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게일은 ‘섬뜩함’을 느꼈다. 즉, 그는 조선인과 상호 시선을 주고받을 수 없었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되는 상황을 당혹감으로 견뎠다. 자신이 어떻게 주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공포에 가까웠다. 사실 그것은 ‘서구·동양’, ‘제국·식민’, 혹은 ‘문명·야만’의 도식화된 구도로 보면, 야만/동양/피식민자가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던 제국의 시선이였다.

반면 동양의 제국이 되고자 했던 일본은 시각이 아닌 후각을 통해 인종적 열등감을 전복해보고자 했다. 인종을 냄새 차이로 구분하고 서양인의 ‘악취’를 강조함으로써 관찰자의 시점을 전유하고 분석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쓰보이 히데토(坪井秀人)는 20세기 초 일본의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서양인의 체취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일본인의 체취를 무취 혹은 미약한 것으로 대비시키는 태도 이면에 있는 ‘의식’을 주목했다. 즉, 그는 “신체적 측면에서 서구인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일본인”이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일종의 명예 회복의 기회”<sup>32)</sup>를 얻고자 했다고 보았다. 시각 중심의 근대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열등감을 다른 감각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후각 문화 현상이 서양에 대응하는 식으로 형성되었다면, 같은 동양권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던 식민지 조선인의 경우에는 제국 일본의 시각적 감시와 검열의 대상에서 감각의 주체로 거듭날 때 상징적으로 회복했던 것이기도 했다.<sup>33)</sup> 이렇게 후각은 서구/동양, 제국/식민 간의 위계와 차별을 유지하거나 반대로 전복시키는 양 방향에서 활용되었던 감각이었다.

32) 坪井秀人 (2006). 感覺の近代 聲身體表象. 東京: 名古屋大學出版會. 박광현, 손지연, 신승모, 장유리, 이승준 옮김 (2018). 감각의 근대: 소리 신체 표상. 서울: 어문학사. 313쪽.

33) 김성연 (2019).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신경 절연과 감각의 회복-식민지 소설에서 후각 주체의 부상이 갖는 의미. 구보학보23. 구보학회. 233-264쪽.

상호 감각의 역학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타자에게 감각된다면 그것은 기존의 배경지식과 시각을 유지하고 사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 1903-1912년 경성과 경기도에 체류했던 선교사 미네르바 구타펠(Guthapfel, M.)은 창작 소설 『조선의 소녀 옥분이』에 이러한 장면을 담았다. 소설에서 한 조선인 소녀는 선교사를 통해 신앙을 얻고 위생을 접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기분이 좋아’지는 문명의 ‘냄새’로 인식한다. 그것은 ‘비누와 물’의 냄새였다.

이제는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우리 집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전에 나를 깨물던 흑색과 갈색의 벌레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바퀴벌레와 벼룩이라고 불렀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누와 물”이라고 부르는 물건의 냄새를 언제나 맡게 되어 기분이 좋았어요.<sup>34)</sup>

소녀는 온전한 이름이 없이 식구들에게 “계집애”나 “섭섭이”로 불렸다. 선교사는 이 이름없는 소녀에게 “축복”의 의미를 담아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복이’는 그런 선교사에게 애정과 존경을 표했다. 소녀에게 “비누와 물”이라는 청결의 상징은 ‘축복’과 ‘구원’의 메타포로 다가왔다.

하지만 조선인 소녀가 서양인 선교사가 가져온 서구 문명과 신앙을 기분 좋은 향기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선교사 자신이 창작한 소설 속에서였다. 현실에서는 반전이 존재했다. 선교사는 조선인이 자신들의 냄새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자 충격에 빠지게 된다. 아래 머레이 선교사의 기록에는, 조선인 간호사들이 러시아인 환자에게 ‘족제비 암내’가 난다고 하자 선교사가 ‘그럼 우리에게도 냄새가 나는가?’하고 반문하는 장면이 나온다.

34) Guthapfel, M. L. (1911). *The happiest girl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이형식 옮김 (2008). *조선의 소녀 옥분이* 선교사 구타펠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 서울: 살림, 40쪽.

간호사들은 러시아인 환자들을 싫어했다. 언젠가 내가 간호사들에게 러시아인 환자들을 친절하게 돌보지 않는다고 꾸짖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간호사들이 항의했다.

“러시아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냄새?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깨끗이 씻기면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나는 화가 나 으박질렸다.

“러시아 사람들은 냄새가 지독해요. 곁에 가기도 싫은걸요. 족제비의 암내가 난단 말이에요.”

“족제비 냄새가 난다고요? 만일 외국인들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마틴 박사나 나한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조마조마하면서 묻자 간호사들은 조심스럽게 우리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고 대답했다.

“당신들은 항상 우유를 마시고 버터와 치즈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냄새가 안 날 턱이 없지요.”

그들은 냄새가 나는 이유까지 솔직하게 지적했다. 그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었다.<sup>35)</sup>

선교사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조마조마하며’ 기다렸고, 조선인은 “같은 냄새가 난다”고 답했다. 그리고 같은 냄새의 원인을 러시아인과 선교사가 공통적으로 먹는 식재료에서 찾았다. 우유와 버터, 치즈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선인이 서양인의 악취를 언급하는 기록은 다른 선교사의 글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더러는 유사한 에피소드가 다른 글에 등장하고, 혹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라고도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 사이에 왕왕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언더우드 부인의 글에 등장하는 서구 도시의 악취에 관한 이야기다.

사실 우리는 엄청난 자만심에 빠져서 동양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것이

35) Murray, F. J. 김동열 옮김 (2009). 앞의 책. 52-53쪽.

라면 뭐든지 입을 딱 벌리고 존경한다는 착각을 종종 한다. 조선의 한 양반이 생각한다. 미국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뒤에 뉴욕이 어떻더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아주 좋더군요. 그 끔찍한 먼지와 냄새만 빼고는 말입니다.”<sup>36)</sup>

언더우드 부인은 동양인들이 서양이나 문명을 추종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양인들의 착각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를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조선인이 뉴욕에서 끔찍한 냄새나 난다고 했다’라고 하는 위의 사례를 인용한다. 이러한 ‘서양의 냄새를 맡은 조선인 일화’를 공유한 선교사들은 ‘악취’에 대한 상반되는 사례를 통해 문화는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환기시켰다.

물론 조선인이 서양의 문명에서 악취를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서구 중심적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1909년 선교사 게일은 뉴욕을 방문한 조선인의 에피소드를 언급하고 있다. 게일과 조선인 총영사 이씨가 뉴욕 센트럴 파크 박물관을 함께 걸을 때 이씨는 갑자기 코를 막았다.

우리가 미라 전시실에 이르자 이씨는 그것을 쳐다보고는 코를 막았다. 왜 코를 막느냐고 묻자 그는 코를 쥐고, 다른 손으로 미라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 미라는 죽은 지 5000년이 됐는걸요.” 그는 코를 쥐고 “그래요?” 대답했다. 그는 두려울 정도의 더러운 길을 걸을 때는 악취를 느끼지 못했지만 미라의 냄새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sup>37)</sup>

미라에게서 악취가 난다는 조선인을 보며 게일은 조선의 냄새를 떠올린다. 게일에게는 조선 거리에서 맡은 악취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그런 길에서 일상생활을 하던 조선인이 뉴욕이라는 도시 박물관에서 미라 냄새를 감지

36) Underwood, L. H. 김철 옮김 (1984). 앞의 책, 115쪽.

37) Gale, J. S. (1911).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게일, J.S. (2000). Korea in Transition. 서울: 경인문화사. 112-113쪽.

해내는 모습이 의미했던 것이다. 서로의 공간에서 감각한 악취는 그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낯선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동반한 감정과 관념의 영역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나아가 이 견디기 힘든 감각 경험을 정신 극복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선교사들은 근대적 위생 관념과 공공 공간에 대한 미적 기준을 가지고는 선교지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토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면 정신적으로 버티야만 한다고 다짐한다. 다음은 애니 베어드의 기록으로, 본국에서 가지고 온 가치관과 지식, 습관이 선교지에서 흔들릴 때, ‘마음’의 문제로 극복해야 한다고 스스로 되뇌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비기독교 국가에서 살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신 속에, 공공법률에 따라 살면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는지 알게 된다. 우리는 어디에서는 체계와 질서, 그리고 공공의 아름다움 같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다. (중략) 새로운 선교사에게는 마음속 깊이 펼쳐버리기 힘든 무거운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지만, 여기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진정한 선교사라면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추악한 면만을 보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sup>38)</sup>

애니 베어드는 이 글에서 “진정한 선교사”라면 선교지에서 감각하고 경험하게 되는 “추악한 면만을 보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공공법률과 품위라는 서구 기독교 사회의 질서와 기준이 부당한 노력의 산물이었음을 깨닫고 그 가치도 높지 않지만, 자신들이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왔다는 점을 객관화하면서 “무거운 심리적 압박”을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기를 독려한다.

1893년부터 조선에 체류했던 무스(Moose, J.R.) 역시 근대 위생담론과 문화상대론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갈등하는 선교사의 내면을 고백하

38) Baird, A. L. A. 유정순 옮김 (2007). 위의 책, 54쪽.

고 있다. 그는 먼저 조선 골목의 오물과 악취를 접하며 세균의 문제에 집중한다.

세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의사 말로는 세균이 있다고 함- 아마도 이 개천에서 불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천에 사는 세균들과 미생물들의 종류와 수에 관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열린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와 악취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냄새 문제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한 조선인 신사가 처음으로 뉴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친구가 이 큰 도시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하기를 “예, 매우 좋아요. 하지만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sup>39)</sup>

무스 선교사가 소개하고 있는 ‘한 조선인 신사’와 ‘그의 친구’ 사례는 앞선 게일의 경험담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그는 조선인 여성 신자를 환대하는 의미로 좋은 향신료로 고기 요리를 조리해 대접했다. 하지만 주방의 하인을 통해 정작 그녀는 “냄새가 고약하다”며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sup>40)</sup> 그는 예상치 못했던 조선인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냄새의 문제가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 있다”라고 하며, 후각 자극에 대한 반응은 절대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환기시킨다.

즉, 우리는 “언어적 정의, 문화적 연상, 개인의 기억을 통해 학습한 대상을 인식”함으로써 “같은 냄새 분자가 코에 들어오더라도 향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를 수” 있다.<sup>41)</sup> 그렇다면 낯선 문화를 접하는 이는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

39) Moose, J. R. (1911). Village life in Korea.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 문무홍 외 옮김 (2008). 1900, 조선에 살다. 서울: 푸른역사. 71쪽.

40) Moose, J. R. 문무홍 외 옮김 (2008). 앞의 책. 71쪽.

41) Platoni, K. (2015). We have the technology. New York: Basic Books. 박지선 옮김 (2017). 감각의 미래. 서울: 흐름출판. 107쪽.

로 문명화된 한 명의 행위자”에 불과하다는 문화번역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42)</sup> 따라서 문화접경지대의 후각 주체들은 쌍방이 서로를 달리 인식할 수 있다는 문화진화론적 시각에 따라 타자를 야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두 문명의 관계를 통해 각자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을 견지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낯선 후각 경험은 자기중심적 시각을 낮설게 만들며 미세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 IV. 종교와 과학, 냄새에 의미를 입히다

그렇다면 선교사가 이주자로서 경험했던 일상생활에서의 감각은 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냄새와 관련된 어휘가 종교적이고 정신적 의미를 갖는 현상은 광범위한 문화권에서 발견된다.<sup>43)</sup> ‘향기=선=신’ 그리고 ‘악취=악=악마’라는 도식은 종교와 문명의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도 향기는 신의 고귀함과 결부되어 있었다.<sup>44)</sup> 아래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16절)

42)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54쪽.

43) Pause, B. M. & Seul, S. M. (2020). Alles Geruchssache. Berlin: Piper. 이은미 옮김 (2021). 냄새의 심리학. 서울: 북라이프 99쪽.

44) Classen, C., Howes, D. & Synnot, A. (2002). Aroma: The cultural history of smell. New York: Routledge. 김진옥 옮김 (2002). 아로마, 냄새의 문화사. 서울: 현실문화연구. 75쪽.

이와 같이 ‘향기’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관용어를 이루고,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구원의 상징이 된다. 향기는 실제와 은유의 차원에서 신의 총애나 신성함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sup>45)</sup> 한때 초기 청교도는 로마제국의 짙은 향기 문화를 퇴폐와 관능으로 부정하고 정결한 신체의 냄새를 지향했지만, 6세기 이후부터는 ‘성덕의 향기’라는 영적 개념으로 이를 포용하기 시작했다.<sup>46)</sup>

반면 악취는 지속적으로 타락과 방종의 상징이었다. 다음은 20세기 초 선교사가 조선인들에게 영사기를 활용하며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다. 방탕한 삶을 산 아들의 ‘더러운 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났지만, 아버지도 하나님도 이를 개의치 않는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이다.

“비단 두루마기는 전당 잡혔고 갓도 없어졌으며 가지고 있던 돈은 기생과 술에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들의 더러운 몸에서는 돼지 냄새가 납니다. (중략) 아버지는 아들 몸에서 돼지 냄새가 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만 돌아온 아들을 반길 따름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리석은 아들같이 하나님을 떠났었다 하더라도 우리를 반겨줍니다.”<sup>47)</sup>

이처럼 기독교에서 ‘은유로서의 향기/악취’는 신앙과 타락의 척도였으며, 그것은 여러 종교에서 유지되어 온 향 피우기 문화와 결부되어 있었다. 향의 연기가 기류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현상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다가가는 것으로 의미화 되었다. 작가 이광수는 기독교 문화를 즐겨 소재화했는데 1920년대 발표한 소설에서도 높은 곳의 신에게 올라가는 향내를 묘사했다.

피우는 향내는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낮은 땅에서 (중략) 높은 하늘 위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지도하시는

45) Classen, C., Howes, D. & Synnott, A. 김진옥 옮김 (2002). 위의 책. 74쪽.

46) Classen, C., Howes, D. & Synnott, A. 김진옥 옮김 (2002). 위의 책. 75쪽.

47) Murray, F. J. 김동열 옮김 (2009). 앞의 책. 193쪽.

우리 주께로 올라갑니다.<sup>48)</sup>

한문학의 오랜 전통에서도 냄새 관련 어휘는 도덕적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향기’는 고결한 정신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수사였다. 예컨대 “향초(香草)는 곧 현자의 고결한 인품이나 높은 지조를 비유”<sup>49)</sup>했고 “향기로 운 명성(名聲)”이라는 수식어구는 “고결한 품덕(品德)”을 의미했다<sup>50)</sup>. 이러한 관습에 기대어 식민지 시기 수입 화장품과 향수 광고에서도 “높은 향기”라는 표현이 즐겨 사용되었다.<sup>51)</sup> 즉, 향기에 정신적 가치를 결부시키는 현상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이 기독교와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고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의료 선교 활동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교사의 후각 경험 기록은 악취에 집중되어 있었고 위생 담론을 동반했다.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 왕실과 양반, 민간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의료 선교 활동부터 시작했으며, 이때 전염병에 대한 대응, 위생적 습관과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선교부는 생활 습속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절제운동(Temperance Campaign)’을 캠페인으로 내세우며 출판과 강연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절제운동’이란 금연과 금주를 시작으로, 위생, 질병관리, 성교육, 육아, 요리, 처첩제 폐지, 주거환경 등의 생활 전반 습속에 관한 개선 운동으로

48) 인용자가 현대어로 표기 함. 장백산인(이광수). 금십자가. (1924.4.1.). 동아일보

49) 이수광(李睟光). 지봉집(芝峯集) 권6. 「시 칠언배울」의 한국고전종합DB 국역 각주 12번 참조. “혜초는 향초(香草)로, 곧 현자(賢者)의 고결한 인품이나 높은 지조를 비유하는데, 굴원(屈原)의 〈이소경(離騷經)〉에 “내 이미 난초를 구원에 심었고, 또 혜초를 백묘에 심었노라. [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라고 하였다. 굴원처럼 고결한 인품을 지닌 노수신이 먼 남방 섬 진도에 유배되어 시를 비롯하여 훌륭한 자취를 남겼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수광 시와 각주는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

50) 이백의 「맹호연에게 주대(贈孟浩然)」에 “높은 산과 같으니 어찌 우러러보리 그저 맑은 향기를 敬慕할 뿐이라네[高山安可仰 徒此挹清芬]”라고 하였다. 해당 작품의 원문과 번역문은 동양고전종합DB의 (譯註) 唐詩三百首 2 (손수(孫雋) 저, 송재소 외 역) 권3에서 인용. 이백시 원문은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

51) 일레로 화장품인 “우레나 레몬크림” 광고에 “높은 향기”라는 광고문구가 있다.(동아일보 1934.8.26.)

확장되었는데, 1920년대에 이르면 이러한 내용을 요약해 담은 ‘절제운동 시리즈 문서’를 대규모 발간하기에 이른다.<sup>52)</sup>

20세기로의 전환기에 미국 내 선교본부에서는 신자의 일상 속으로 적극 개입하는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sup>53)</sup> 이후 절제운동은 파견 선교사들을 통해 각 선교지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선교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 적응과 생존을 위해서 비위생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악취의 발원지에는 유해한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지식과 장기설, 감염설이 결합되어 보이지 않는 경로와 접촉에 대한 공포감이 창출되었다. 악취는 무지와 게으름, 방치의 소산이었으며, 생명 위협의 징후였고, 따라서 계몽과 교정의 대상이었다.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포졸을 비롯한 조선인 노동자 남성의 술냄새와 담배냄새가 불러 일으키는 무절제함에 대한 경계와 불쾌감이 곳곳에 표출되어 있었으며, 조선인의 개종 전 후의 모습을 비교할 때에는 더럽고 악취나는 존재에서 정결하게 변모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sup>54)</sup>

이렇게 청결을 마음과 죄악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의식은 한 의료선교사가 1907년 평양에서 발간한 보건위생서인 『위생』에도 잘 담겨있다. 『위생』은 물과 공기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그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구분하는 방법과 유지하는 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는 악취와 부패와 거리가 먼 향기로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서문에서 아래와 같이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깨끗’하게 하고 ‘죄악의 뿌리 끊기’에 도달할 것을 권한다.

이 글을 보시는 이들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명심하고 살펴 밖으로 몸을 정결케 하여 병의 근심을 막고 안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죄악의 뿌리 끊기를 바라노라.<sup>55)</sup>

52) 관련 인쇄물의 출판 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에 정리되어 있다. 김성연 (2015b). 식민지 시기 기독교 출판과 책의 유통-조선예수교서회를 중심으로 사이, 18호.

53) 김익진 (2001). 2차 대각성 운동과 그리스도교회 환원운동. 복음과 교회, 11권, 81-104쪽.

54) Gale, J. S. 최재형 옮김 (2018). 앞의 책, 247쪽.

이렇게 의료선교사들이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해석을 결합시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일시하면서 후각 감각은 보다 강력한 구원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도 ‘악취’는 근대 위생 담론의 힘을 받으면서 현실 속에서 ‘척결해야 할 악’으로 간주 되었다.

그리고 후각은 생존을 위한 호흡과 직결된 감각이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아래 인용문은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가 ‘신선한 공기’를 갈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창문을 꼭 닫는 풍습이 있는 조선의 온돌방에서는 환기가 되지 않아서 괴로웠고, 하수설비가 미비한 거리로 나갔을 때에는 악취로 견디기 어려웠다.

게다가 아주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수증기며, 푸르스름한 웅덩이이며 하수도 따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하수도라는 것은 후덥지근한 밤 공기 속에서 들짐승보다 더 살인적인 말라리아균을 내뿜는 곳으로 이름이 높다. (중략) 그러니 끝내는 문밖으로 뛰쳐나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화끈거리는 머리를 식힐 수밖에 없다.<sup>56)</sup>

냄새와 상태를 보아 산모는 피를 많이 흘린 것 같았고, 출산 시 생긴 분비물들 위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후끈한 온돌방에서 풍기는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라.<sup>57)</sup>

하수도에서의 악취는 “들짐승보다 더 살인적인 말라리아균을 내뿜”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의료선교로 경험해야 했던 온돌방에서의 출산 장면은 분비물들과 함께 풍기는 후끈한 온돌방의 냄새로 기억되었다. “‘비위생적’이거나 ‘불결함’이라는 말에 딱 맞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행동들이 예사로 저질러 지”<sup>58)</sup>는 주거환경과 생활습관에 관한 선교사의 기록은 도처에서 찾아볼 수

55) 인용자가 현대어로 표기함. 웰즈, J. H. 지음 (1907). 위생. 서울: 대한예수교서회, 2쪽.

56) Underwood, L. H. 김철 옮김 (1984). 앞의 책, 51쪽.

57) Hall, R. S. (2017). Diary of Dr. Rosetta Hall, volume 5. Colorado: Esther Foundation. 김현수, 문선희 옮김 (2017). 로제타 홀 일기5. 서울: 흥성사, 200쪽.

있다. 이들은 의료선교를 위해 하층민들과도 밀접 접촉해야 했고, 이때 느낀 세균 전염에 대한 공포감은 ‘불결함’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켰다. 이처럼 의료, 출판, 교육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 선교는 두 문명이 접촉한 지대에서 벌어진 ‘감각’의 마찰과 인식에 개입했고, 기록을 통해 기억을 언어화했다.

## V. 결론

‘후각의 사회학’을 제시한 알랭 코르뱅은 근대 파리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이 재구축되어 갈 때 후각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그것과 조응하며 형성되어갔는지를 보여주었다. 냄새와 향기에 대한 인식과 담론은 역사적 전환의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은 식민화와 서구화의 영향 속에서 근대화가 진행되어 가는 접촉과 변화의 시공간에서 감각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러한 식민지 시기 근대적 개인의 자기 인식과 소비주체의 탄생은 ‘후각’적 경험과 표현을 통해 설명되기도 했다.<sup>59)</sup>

이 글은 19세기 후반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조선에 체류했던 서양인 선교사들의 문서에서 보이는 후각 경험에 관한 기록에 주목했다. 오리엔탈리즘을 다룬 에드워드 사이드의 분석에서도 ‘제국’이 ‘식민’의 냄새를 기록한 텍스트가 등장하지만, 이는 대체로 ‘제국-남성’이 ‘동양-여성’의 체취를 감각하는 성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sup>60)</sup> 조선의 경우, 흥미롭게도 다양한 후각 기록은 외교관, 언론인, 군인보다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빈번히 발견된다.<sup>61)</sup> 선교

58) Underwood, L. H. 김철 옮김 (1984). 앞의 책, 127쪽.

59) 이병돈 (2012). 후각을 통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60) Said, E.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박홍규 옮김 (2007).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333-335쪽.

61) 조선 후기 제도와 시스템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후각을 비롯한 감각 경험은 좀처럼 남기지 않은 외교관, 교사, 군인 등의 저술은 다음과 같다. Zuber, H. (1873). Une expédition en Corée. Le Tour du monde. Volume 25. 유소연 옮김 (2010). 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

사들은 전도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서 선교를 통해 다양한 계급, 성별, 연령의 조선인의 일상 공간에 진입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공존해야 했다. 이렇게 낯선 문화와 최초로 접촉하는 순간 강렬한 후각적 자극이 감지되었으며, 그것은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 기준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타자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기 검열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보수적이었던 양반계급보다 하층민과 여성, 아동을 적극적인 포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통제되지 않은 일상 생활의 냄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감각된 냄새를 고백하거나 분석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언어를 찾아 기록한 선교사들의 글쓰기 과정은, 문화접경지대(contact zone)에서 벌어진 문화번역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으로 다음의 세 가지 지점을 밝히고자 했다. 첫째, 후각 기록을 통해, 그간 주로 정치적 입장 혹은 시각적 근거에 집중되어 진행되던 근대/전근대, 식민/제국, 서구/동양의 대결 구도 읽기를 다각화하여 문화접경지대 속 행위자들의 내면을 읽어내고자 했다. 선교사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서구 중심적 계몽주의, 그리고 문화상대론적 자기반성 사이를 오가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관찰 대상으로 인식되던 조선인이 선교사 혹은 서구를 감각하며 보인 반응이 다시 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접경지대의 변화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소산임을 알 수 있었다. 시각에 비해 감정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 주체와 객체가 공존하는 후각 경험은 관찰 주체의 자기 중심성과 일방향성을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셋째, ‘냄새’와 ‘향기’는 종교적, 윤리적, 과학적 차원에서 실체이자 은유로서 존재해왔으며, 이 차원들이 결합되면서 사회문화적 통제

---

서울: 살림. ; Gilmore, G. W. (2016). Korea of today. Hansebooks. 이복기 옮김 (2009). 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1894. 서울: 살림. ; Bourdaret, E. (1904). En Corée : ouvrage accompagné de 30 gravures hors texte. Paris: Plon-Nourrit. 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서울: 글항아리. ; Podzhio, M. A. (1892). Очерки Кореи. Ст. Петербург: Тип. Е. Евдокимова. 이재훈 옮김 (2010). 러시아 외교관이 바라본 근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위생, 의학 지식과 결합된 기독교 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위협과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믿음, 즉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결합시킴으로서 감각과 개념을 사실과 윤리의 담론으로 구축해갔다. 이렇게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기술했던 감각 경험에 대한 기록에는 종교와 과학과 사상이 개입되는 장면과 함께, 문화상대론적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움트게 하는 지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낯선 문명을 접한 ‘감각’ 경험을 해석하고 기술했으며 이것은 ‘인지적인 동시에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속성’<sup>62)</sup>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화번역행위로 볼 수 있었다. 게다가 기록 주체인 선교사들은 성경 및 교리서 번역을 위하여 이중어사전을 발간하고, 문학작품과 지식교양서를 번역하는 등 번역가이자 집필가로서도 활약했다. 이러한 번역가로서의 정체성은 문화를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시각과 어휘를 확보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요구했던 것이다. 애초에 영어로 쓰여졌던 해당 텍스트들의 원서 어휘와 한글 번역어를 비교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흐름 상 생략하였으나, 후속 작업을 통해서 선교사의 ‘이중어사전’ 작업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로고스의 힘이 지배적이었던 근대를 지나 디지털 공간과 코로나 19로 비대면, 비접촉의 속도가 가속화된 지금, ‘감각’을 통한 근대의 접촉 경험을 재독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화에 따른 심미적 감각 변화를 분석한 츠보이 히데토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사고나 언어의 의미를 다시 묻고 혹은 사고나 언어가 어떻게 감각이나 감성을 구축해왔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sup>63)</sup> 우선 시각 이외 감각 기록의 텍스트 읽기는, 시각 및 통계 자료만으로는 복기될 수 없는 감각 주체의 내면을 드러낸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시적 존재 혹은 관념적 대상을 신체를 통해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후각은 접촉한

62) 김현미, 앞의 책, 54쪽.

63) 坪井秀人 (2006). 感覺の近代 聲身體表象. 東京: 名古屋大學出版會. 박광현, 손지연, 신승모, 장유리, 이승준 옮김 (2018). 감각의 근대: 소리 신체 표상. 서울: 어문학사. 35쪽.

시공간과 타자에 집중된 감각이며 공존과 상호인식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복합적 감각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독법을 통해, 시각 중심의 내용 분석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진 근대성 연구의 한계를 다소 보완하고 우리가 타자와 접촉하고 공존하는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시야를 풍부히 하게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근대 초기 선교사, 후각 기록, 은유로서의 냄새와 향기, 문화접경지대, 문화번역, 문화상대론

[참고문헌]

- 광고면. (1934.8.26.) 동아일보
- 김성연 (2015a). 근대 초기 선교사부인의 저술 활동과 번역가로서의 정체성. *현대문학의 연구*, 56, 253-290쪽.
- 김성연 (2015b). 식민지 시기 기독교 출판과 책의 유통-조선예수교서회를 중심으로. *사이*, 18, 9-45쪽.
- 김성연 (2019).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자기 신경 절연과 감각의 회복-식민지 소설에서 후각 주체의 부상이 갖는 의미. *구보학보*, 23, 233-264쪽.
- 김승태, 박혜진 엮음 (1994). *내한선교사총람*. 서울: 한국역사연구소
- 김익진 (2001). 2차 대각성 운동과 그리스도교회 환원운동. *복음과 교회*, 11권.
- 김현미 (2005).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박지훈 (2021). 매리 루이스 프랫과 접경 혹은 접촉지대 연구. *역사비평*, 136권, 155-196쪽.
-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
- 웰즈, J.H. 지음 (1907). *위생*. 서울: 대한예수교서회.
- 이병돈 (2012). 후각을 통한 근대적 주체의 형성: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 자넷윤선리 (2021). 미국 선교사 애니 베어드 소설의 문화 번역 양상 연구. *어문론총*, 90, 91-115쪽.
- 장백산인(이광수). *금십자가*. (1924.4.1.). 동아일보
- 주혜림 (2020). 타자에 의하여 감각된 조선. *언어사실과 관점*. 언어정보연구원, 50호, 351-375쪽.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한미경 (2021). 디지털인문학 교육의 사례 연구: 초기 내한 선교사 사료 수업과 연계하여. *인문과학*, 123, 7-38쪽.
- 헬렌 켈러는 여성에게 무엇을 부르짖었는가 2. (1937.7.17.). 동아일보
- Baird, A. L. A. (1909).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 New York, Chicago, etc. : Fleming H. Revell Company. *유정순 옮김* (2007). *따라 따라 예수 따라가네*. 서울: 디모데.
- Bourdaret, E. (1904). *En Corée : ouvrage accompagné de 30 gravures hors texte*. Paris: Plon-Nourrit. *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서울: 글항아리.
- Classen, C., Howes, D. & Synnott, A. (2002). *Aroma: the cultural history of smell*. New York: Routledge. *김진옥 옮김* (2002). *아로마, 냄새의 문화사*. 서울: 현실문화연구.

- Corbin, A. (1992). *Le miasme et la jonquille, l'Odorat et l'imaginaire*. Paris: Aubier Montaigne. 주나미 옮김 (2019). *악취와 향기-후각으로 본 근대 사회의 역사*. 서울: 오롯.
- Gale, J. S. (1898). *Koream sketches*. New York, Chicago [etc.]: F.H.Revell company. 최재형 옮김 (2018). *조선 그 마지막 10년의 기록 1888-1897*. 서울: 책비.
- Gale, J. S. (1911).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 Missionary education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신복룡 옮김 (1999). *전환기의 조선*. 서울: 집문당.
- Guthapfel, M. L. (1911). *The happiest girl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이형식 옮김 (2008). *조선의 소녀 옥분-선교사 구타펠이 만난 아름다운 영혼들*. 서울: 살림.
- Gilmore, G. W. (2016). *Korea of today*. Hansebooks. 이복기 옮김 (2009). *서양인 교사 윌리엄 길모어, 서울을 걷다 1894*. 서울: 살림.
- Hulbert, H. B. (1906). *The passing of Korea*. London : William Heinemann. 신복룡 역주 (2019). *대한제국명망사*. 서울: 집문당.
- Hall, R. S. (2017). *Diary of Dr. Rosetta Hall, volume 5*. Colorado: Esther Foundation. 김현수, 문선희 옮김 (2017). *로제타 홀 일기5*. 서울: 흥성사.
- Murray, F. J. (1975). *At the foot of Dragon Hill*. New York: E.P. Dutton. 김동열 옮김 (2009). *내가 사랑한 조선*. 서울: 두란노.
- Moose, J. R. (1911). *Village life in Korea*. Publishing House of the M. E. Church, South, Smith & Lamar, agents. 문무홍 외 옮김 (2008). *1900, 조선에 살다*. 서울: 푸른역사.
- Pause, B. M. & Seul, S. M. (2020). *Alles geruchssache*. Berlin: Piper. 이은미 옮김 (2021). *냄새의 심리학*. 서울: 북라이프.
- Platoni, K. (2015). *We have the technology*. New York: Basic Books. 박지선 옮김 (2017). *감각의 미래*. 서울: 흐름출판.
- Podzhio, M. A. (1892). *Очерки Кореи*. Ст. Петербург: Тип. Е. Евдокимова. 이재훈 옮김 (2010). *러시아 외교관이 바라본 근대 한국*.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Pratt, M.L. (2003). *Imperial eyed: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aid, E.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박홍규 옮김 (2007).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Tuan, Yi-Fu (1960).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이옥진 옮김 (2011). *토포필리아*. 서울: 에코리브르.

- Underwood, L. H. (1904).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Boston : American Tract Society. 김철 옮김 (1984).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 생활. 서울: 뿌리깊은 나무.
- Zuber, H. (1873). Une expédition en Corée. Le Tour du monde. Volume 25. 유소연 옮김 (2010). 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 서울: 살림.
- 坪井秀人 (2006). 感覺の近代 聲・身體表象. 東京: 名古屋大學出版會. 박광현, 손지연, 신승모, 장유리, 이승준 옮김 (2018). 감각의 근대: 소리 신체 표상. 서울: 어문학사.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세기 후반부터 식민지 시기까지 조선에 체류했던 서양인 선교사들의 문서에서 보이는 후각 경험에 관한 기록에 주목한다. 선교사들은 전도뿐 아니라, 의료, 교육, 문서 선교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급, 성별, 연령의 조선인의 일상 공간에 진입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공존해야 했다. 이렇게 낯선 문화와 최초로 접촉하는 순간 강렬한 후각적 자극이 감지되었으며, 그것은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타자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기 검열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감각된 냄새 혹은 향기를 고백하거나 분석하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언어를 찾아 기록한 선교사들의 글 쓰기 과정은, 문화접경시대(contact zone)에서 벌어진 문화번역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으로 다음의 세 가지 지점을 집중적으로 밝힌다. 첫째, 후각 기록을 통해, 주로 정치적 입장 혹은 시각적 근거에 집중되어 진행되던 근대/전근대, 식민/제국, 서구/동양의 대결 구도 읽기를 다각화하여 역사 속 행위자들의 내면을 읽어낸다. 선교사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서구 중심적 계몽주의, 그리고 문화상대론적 자기반성 사이를 오가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관찰 대상으로 인식되던 조선인이 선교사를 후각적으로 감각하며 보인 반응이 다시 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접경시대의 변화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시각에 비해 감정과 이성, 의식과 무의식, 주체와 객체가 공존하는 후각 경험은 관찰 주체의 자기 중심성과 일방향성을 교란시킨다. 셋째, ‘냄새’와 ‘향기’는 종교적, 윤리적, 과학적 차원에서 실체이자 은유로서 존재해왔으며, 이 차원들이 결합되면서 사회문화적 통제의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각의 기록에 대한 독해를 통해, 다른 문명의 주체들이 접촉하고 공존하는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또 다른 시야를 확보하길 기대한다.

[Abstract]

## Cultural Contact and Translations in the Early Modern Era as Seen through Missionaries' Olfactory Records: Awareness of the Other and Sensory Coexistence

Kim, Sung Yeun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focuses on records of olfactory experiences in personal writings and official documents written by foreign missionaries who lived in Joseon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Missionaries engaged in not only proselytization but also religious, educational, and documentary activities. In the course of such work, they communicated and coexisted with Joseon people of various classes, genders, and ages in their everyday environments. The perception of strong olfactory stimulation was present from the first contact with a foreign culture. Moreover, the perception of smells became a standard for judging the object and a means of self-examination for the subjects to confirm whether they could fully accept, understand, and coexist with the other. Missionaries also had to find the right words within the social context as they confessed to and analyzed smells and fragrances. Thus their writing process can be seen as an act of cultural translation taking place in a cultural contact zone.

This research topic and methodology reveals three points. First, it is possible to read the inner workings of history's actors by diversifying the dichotomies of pre-modernity/modernity, colony/empire, and East/West, which followed mostly from political perspectives or visual evidence. Missionaries had complex/multifaceted identities that altered between their religious calling, Eurocentric enlightenment, and self-reflection based on cultural relativism. Second, Joseon people who were perceived of as objects of observation sensed and communicated their own olfactory reactions to the missionaries. This process shows changes in the cultural contact zone were not one-way but the product of mutual interactions. Compared to the visual, olfactory experiences entail the coexistence of reason and emotion,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ness, and subject and object. Thus they disrupt the centrality and

one-directionality of the observer. Third, ‘smells’ and ‘fragrances’ have existed as reality and metaphors on religious, ethical, and scientific dimensions, and when these dimensions are combined, they exert the power of sociocultural control. Reading such sensory records will hopefully ensure another perspective through which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how subjects of different cultures make contact and coexist.

**【Keywords】** missionaries, olfactory records, smell and fragrance as metaphor, cultural contact zone, cultural translation, cultural relativism.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14일 /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3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4일

**【저자연락처】** syk@yonsei.ac.kr